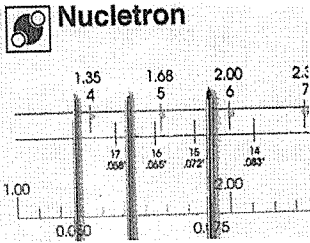


도난 방사성동위원소 회수



과학기술부는 '98.11.9(월) 원자력병원에서 도난당한 암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전량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제보자(원자력병원 퇴직간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슘(Cs-137) 17개 및 이리듐(Ir-192)폐기선원을 전량 회수하였고 미회수중이던 이리듐 12개는 폐기선원의 보관용기를 정밀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도난 방사성동위원소에 관련자가 피폭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수행하여 위해 여부를 진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원자력병원의 동위원소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정밀한 검사를 수행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 11. 10(화)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原電중사자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연구를 실시

과학기술부는 22일 서울대 의학연구원 역학조사팀 주관으로 향후 5년동안 전국의 4개 原電중사자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원전중사자 및 지역주민 등 모두 4만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역학조사 연구는 원전가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방사선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0-95년 1단계 역학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대 의학연구원李明哲교수가 이끄는 역학조사단은 원전 인근에 있는 전남의대, 경북의대, 동아의대, 인제 의대 등 전국의 7개대학과 한일병원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과기부는 이번에는 특히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산하의 국제癌연구기구(IARC)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등을 통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98/10/22 >

양전자방출촬영(PET) 검사 뇌종양 진단에 탁월한 효과

양전자방출촬영(PET) 검사가 다른 곳에 생긴 암이 뇌로 전이된 전이성 뇌종양 진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김동규(신경외과), 정준기 교수팀(핵의학과)은 최근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되는 환자 20명에 대해 종래의 검사법과 PET검사를 실시, 진단능력을 비교한 결과 PET검사가 정확도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 3일 밝혔다. 연구팀은 20명의 환자에게 PET검사를 해 11명이 전이성 뇌종양임을 밝혀내고 처음 암이 발생한 곳을 정확히 진단해 냈으나 종래의 검사법으로는 9명의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해내는데 그쳤다. 연구팀은 이를 유럽신경외과학회지(Acta Neurochirurgica) 최근호에 발표했다. 종래의 검사법은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될 때 1주일 정도 환자를 입원시켜 흉부방사선검사,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핵의학검사, 골수 검사 등 많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16-35%는 원래 암이 생긴 곳을 찾지 못하는

● 신문속의 RI뉴스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규교수는 “이제 전이성 뇌종양 여부와 처음 암이 생긴 곳을 찾아내는 데 PET가 중요검사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98/11/03)

「홀몸-166」을 이용 관상동맥 협착증을 치료법 개발

방사선 동위원소인 「홀몸-166」을 이용해 관상동맥 협착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다. 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한수교수팀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응용연구팀의 박경배박사팀은 최근 관상동맥 협착으로 확장 성형수술을 받은 뒤 재협착이 일어난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액체상태의 홀몸-166을 이용해 혈관내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결과 환자들 모두가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그 동안 관상동맥 협착으로 한차례 이상 풍선확장 성형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재발되는 등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연구팀이 개발한 시술방법은 관상동맥 협착에 대한 확장성형술 후 액체상태의 홀몸-166을 풍선도자 내에 주입, 유도철선을 통해 재협착 부위까지 넣어 약 3분동안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치료법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홀몸-166의 베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 인체내에 주사할 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김한수교수는 『확장성형술 후 재협착이 예상되거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 확장성형술과 함께 홀몸-166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98/11/09 >

류마티스 관절염 RI이용 치료 성공률 70~80%를 기록

현대적인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한양대부속병원에서도 류마티스병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병원이다. 89년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내과를 설립하면서「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선진 국형 의료체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한양대병원은 93년 류마티스연구소 설립을 거쳐 5월 역시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 전문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양대병원과 의료진의 지속적인 연구·의료활동은 이미 국내외 각종 유명 학회지에 게재된 200여편의 논문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류마티스학회 초록순위(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 15편의 논문이 게재됨으로써 세계1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의 특징은 세분화한 전문치료. 질환별로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류마티스 내과를 비롯, 진단면역 재활의학 등 세분화한 체계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병원과 공동개발한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법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성공률 70~80%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병원은 또 항핵항체 검사법을 개발, 미 류마티스학회에서 새로운 진단기법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국내외 특허를 획득해 실용화작업 단계에 있다. 김성윤(金星潤)병원장은 『병원에서 현재 연간 8만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항류마티스제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을 국내에 도입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력있는 인재들의 지속적인 확보로 21세기 세계최고의 전문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98/11/18 >

● 신문속의 RI뉴스

제50회 RI(감독·특수) 면허시험 합격자 명단

RI 감독면허(22명)		RI 특수면허(21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성명
9001	류지헌	8001	장윤영
9010	원광희	8003	김대진
9012	김대규	8004	신중우
9019	서찬영	8005	양원일
9022	안병철	8006	이기열
9057	손은주	8010	김경민
9075	김정섭	8011	천기정
9142	김종남	8012	소영
9220	최경순	8014	김석기
9501	백봉재	8018	천경아
9505	조영태	8020	김영주
9511	김성호	8021	송경섭
9513	김동혁	8022	조송미
9517	김동륜	8028	정현석
9519	박용준	8030	최준영
9520	조봉래	8031	배운선
9534	윤명희	8032	윤석남
9548	정수봉	8501	이재복
9550	박소순	8502	천경아
9621	김우섭	8504	정환정
9651	이종윤	8505	민정준
9657	이상웅		